

주일 메시지

아쉬움과 후회를 뒤로하고 “아무튼 잘했어”

[마태복음 25: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1. 마지막 - 결산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는 마지막 주일이다. 성경에서 마지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산'을 말한다. 결산은 일정한 기간 안에 일어났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재생산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말한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산이 있다. 성경은 결산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명확히 한다. 오셔서 '결산'하신다. 그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때를 기록한 24장에 이어, 25장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언급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이다. 그에 대한 여러가지 비유 중의 하나가 '달란트' 비유이다. 주인이 타국을 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맞게 배분하여 나누어 준다.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난다.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온다. 그리고 '결산'한다.

[마태복음 25: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마지막은 '결산'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 종착역의 이름은 '결산의 역'이라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 평가는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 결산에서 이루어진다.

결산을 인식하며 사는 인생과, 결산을 무시하며 사는 인생은 다르다. 오늘 주인의 칭찬을 들었던 다섯, 두 달란트 맡은 종과, 책망을 받았던 한 달란트 맡은 종의 차이는 딱 하나이다. 마지막 '결산'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한다. 마지막이 결산의 시간이라는 것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인식하자.

2. 결산하는 주인과, 결산 받는 종의 마음

(1) 결산하는 주인의 마음

결산하는 주인의 마음은 분명하다. 자신이 부탁하고 간 달란트를 소유한 종들의 최선을 보고싶은 마음이다. 물론 결과까지 좋았으면 좋겠지만, 주인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심이 있는 것 같다. 주인의 칭찬을 보자.

[마태복음 25:21, 26] 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주인의 칭찬과 책망을 보자. 결과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아니다. 종의 태도와 성품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다. '착하다. 악하다'는 성품에 대한 평가이다. '신실하다. 게으르다'는 태도에 대한 평가이다. 분명히 해야 한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만약 결과로 평가를 했다면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과, 두 달란트를 남긴 종의 칭찬과 상급'이 같을 수 없다. 한 달란트를 남긴 종도 한 달란트만 남겼다는 결과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악한 종의 악한 성품과 태도에 대한 책망인 것이다.

(2) 결산 받는 종의 마음

[마태복음 25:20, 25] 20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런데 결산 받는 종의 관심은 칭찬을 받은 종이나 책망을 받은 종 모두 '결과'에 집중한다. 결산하는 주인의 관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결산 받는 종들은 결과에만 집중한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있다.

3. 우리에게 있어서 결과는?

왜 주인은 과정에 집중했고, 종들은 결과에 집중했을까? 이유는 명확하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인 이상의 완전하고 온전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하다.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견주어 결과를 만들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다. 율법은 결과를 말한다. 결과에 따른 상과 벌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십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이기 때문에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율법을 사람이 지키도록 주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1)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로 되어 있다. 사람이 이를 어길 때 죄를 알게 된다.

[로마서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로마서 7:12]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3) 예수님을 통한 은혜로 완성될 수 있다.

[갈라디아서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결과’이다.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결론이 아니다. 모든 율법을 온전히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우리의 행위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 완전히 흠 없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를 아는 것이다.

4. 아무튼 잘했어

온전함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사는 인생이 복음을 아는 인생이다. 결과를 예상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착함이란 예상 못하고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인이 명령을 했기 때문이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악함은 결과를 자기 스스로 미리 예측한다. 주인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스스로 해석한다. 그래서 주인 때문에 자신이 게으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결국 주인 핑계이다. 죄는 핑계를 만드는 것이다. 전가하는 것이다. (하와가 아담에게, 그리고 뱀에게)

모든 사람은 마지막 결산의 때에 ‘아쉽고, 후회가 가득하다’ 그 후회와 아쉬움은, 열심히 했는데 예상보다 결과가 흡족하지 않았을 때이다. 그리고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지막 결산의 때에 예수님은 나의 결과가 온전하지 못할 것을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완성은 주님 손에 있는 것이다.

내 노력으로 죽을 써서 드러도 예수님은 완전한 작품으로 변화 시키신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님께 드러도,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병이어를 드러도 오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풍족함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1) 아무튼 잘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드는 생각은 대부분이 후회와 아쉬움일 것이다. 예배를 좀 더 열심히 드릴 수 있었는데, 모든 영역에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는데 등. 돌아보니 실수투성이, 넘어짐 투성이의 나를 보게 된다. 내가 만든 결과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은혜를 아는 건강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용기를 주신다. 일어날 힘을 주신다. 예수님이 아니면 여기까지도 올 수 없었다. 이런 나를 보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000 아무튼 잘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온 네가 대견스럽다”

또한 나 자신을 보며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000 아무튼 잘했어, 최선을 다했잖아. 결과가 조금 부족해도 수고했다.”라고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2) 아무튼 신앙

우리 말 중에 ‘아무튼’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 정의로는 ‘일의 사정, 형편, 조건,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든 (상관없이) ‘의 뜻이다. 강력한 말이다. 상황을 초월하게 만드는 단어이다. 결산이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아쉬워해도 소용없다. 감사만 하면 된다. 기뻐하면 된다.

‘아무튼 감사하자’, ‘아무튼 기뻐하자’, ‘아무튼 기도하자’ 이 고백을 하면 된다.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이것만 점검하면 된다.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보자. 왜? 나를 돕는, 나의 부족함을 돕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